



4면

위싱턴주와 국제교육 협력 확대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음 10월 24일) 제33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내년 총선 전북 의석수 1석 감석

10석에서 9석으로... 확정위, 국회의장에 확정안 제출 남원·임실·순창 '분구' ... 각각 타선거구와 합구

민주, "輿 의견만 반영해 편파적... 수용 불가" 반발 향후 국회 정개특위서 여야 협상 통해 확정안 조정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 의석수가 1석 감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선거구가 정읍시·고창군·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 조정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위에 승부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은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인구 법위는 하한 13명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을 적용했다.

획정위는 입장문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와 획정 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출된 확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결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확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확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의 "서울은 노원과 강남을 줄이는 것이 인구 대표성,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라며 "부산 의석은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전북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야 할 것 같고 경제 조정은 여야가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1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도와 카자흐스탄 경제포럼에 김관영 도지사와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유인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경제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과 협력 모색 | 전북도, 카자흐스탄과 경제포럼 카자흐 기업과 비즈니스 장 마련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전라북도-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카자흐스탄의 바람'을 열고 있다.

5일과 6일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 유인봉 사무총장, 아리스타노프 누르갈리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비롯해 포럼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 통상 및 교류협력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중앙아시아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주제로 실레이만 데미렐(Suleyman Demirel) 대학교의 바우르잔 예드게노브(Bauyrzhan Yedgenov) 경제학 교수가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어 시작 단계인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포럼 첫 주제인 전북도와 알마티 주의 교류를 주제로 지방외교의 역할 및 중요성, 문화교류, 지역 산업을 어떻게 외교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농생명 식품산업과 스마트 팜을 주제로 농촌진흥청, 전북바이오진흥원,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대중 대표가 참석해 스마트 팜, 농산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사례들을 주고 받았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된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냉장·냉동가공식품기업과 신선식품기업, 건설관련업, 난방소재 관련 기업 등 8개 업체 대표와 30여개 전라북도와 협력 유망기업이 참여해 전북기업 상품 발주, 카자흐스탄-전북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 확장 등 본격적인 경제교류 활성화를 만들어 냈다.

6일에는 '새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지속가능 도시개발'이라는 주제로 새만금과 코나예프에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양 지역이 각각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불랏 무של만베코프 코나예프개발청 개발국장이 함께 새만금을 방문하고 도시개발 중점 내용을 공유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다"며 "이번 포럼 및 전자상거래를 시작으로 전북과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공동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막판 유치 총력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외동포청 주관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구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막판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5일 언브리핑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 등 실질적 경제 성과 확대의 기회로 여겨지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024년 국내 대

인천 등과 경쟁... 7일 최종 결정

회 개최 공모에 접수한 뒤 7일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4년 대회 공모에 전북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며 대회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에 대한 현실사는 지난달 14일 마무리된 상태이며 7일 후보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운영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는 경쟁 지역에 비해 가장 먼저 유치를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구축해 온 해외 한인상공회와 협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들과의

접촉 늘려가며 전북 개최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제20차 울산 대회에 이어 올해 제21차 미국 대회에도 참가해 대회 유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전북도는 제안서와 현장실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만큼 분위기를 이어가 투표에 앞서 진행되는 제안설명회 통해 마지막까지 유치를 위한 전북의 진정성을 표출하겠다는 각오다. /김재훈 기자

2023년도 여행은
풍요롭고 찬란한 고창에서

고창군

풍요롭게 찬란하게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구시포 쌍둥이등대